

圖書選擇論의 辨證法的 研究*

尹熙潤**

목 차

1. 序 論	2.2 요구론의 실제
1.1 연구목적	3. 圖書選擇論의 辨證法的 解釋
1.2 연구방법 및 한계	3.1 변증법적 기본구조
2. 圖書選擇論의 實體分析	3.2 변증법적 전개과정
2.1 가치론의 실제	4. 要約 및 結論

1. 序 論

1.1 연구목적

오늘날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지식층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들의 각종 정보에 대한 이용욕구도 도서관에서 집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資料蒐集業務는 이용자에게 유익하면서도 附加價値가 높은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수집업무 중에서도 圖書選擇은 藏書構成과 貸出滿足率 및 利用頻度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관의 핵심업무로 간주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도서선택은 경영관리나 자료조직에 우선하는 사서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고의 전문직 업무로서, 그것의 連動效果와 持續效果는 이용자를 유인하는 磁性體와 대출봉사를 활성화하는 觸媒劑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도서선택은 도서관의 定性的 評價指標로 귀착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접수일자 : 95. 10. 5.

되는 동시에 存在價値를 가능하므로 당연히 도서관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은 도서선택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合目的性을 추구하는 핵심실무로서의 도서선택이 난해한 영역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適時에 適者에게 제공할 適書를 선택함에 있어서 '價値對要求', '所有對利用'이라는 철학적 딜레마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택론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價値論과 要求論의 延長線上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양대 이론을 중심으로 도서선택론의 歷史的 發展過程과 變容根據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면서 등장한 도서선택론 중에서 가치론과 요구론이 선택론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論理的 根據와 양대 이론에 내재된 二律背反性과 對立性의 실체를 분석한 다음, 사회사조·도서관목적·사서의 가치관·이용자의 관심과 요구 등의 시대적 환경변화에 기인하여 파생된 圖書選擇論의 展開過程을 辨證法的 發展論理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학자와 실무자에 의해 주창된 다양한 도서선택론 중에서도 가치론과 요구론이 그 중심이론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선택론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1세기 이상이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당대를 대표하는 가치관이나 사상 등을 양분하여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二元論의 方法과 선택기조를 연대별로 체계화하는 時系列的 方法, 그리고 도서관목적의 변천과정을 추적하여 선택론의 특질을 규명하는 目的多元論의 方法을 동시에 적용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가치관이나 사상이 도서관의 목적관에 투영되어 그 내용이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도서선택의 원리도 재설정된 도서관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合目的性을 견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더라도 모든 선택론의 전개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선택론의 태동과 발전을 주도해 온 英美의 公共圖書館으로 국한한다. 그리고 양국에서 생성된 선택론의 變化推移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이 도서선택의 주요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들의 현상적 특성을 도출하여 현대사회의 進行方向과 선택요인의 變化方向을 예측하여야 하겠지

만, 선택론들의 系譜가 방대하기 때문에 가치론과 요구론의 狀況構造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계보성이 미약한 인물이나 학설은 논외로 한다.

2. 圖書選擇論의 實體分析

어떤 도서선택론이 당대를 대표하는 선택원리로 등장하여 변동·퇴조하는 이유는 이용자집단의 독서흥미와 관심·요구량과 요구가치, 지역사회의 규모와 특성, 도서의 가치와 질적 수준, 도서관의 목적과 성격, 도서구입비, 도서선택자, 선택주변의 풍토 등이 일정한 상황구조를 이루면서 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선택자와 기타 선택기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環境條件의 風土는 합목적적 도서선택을 방해하는 現實的 要因인 반면에 도서와 이용자는 도서관목적과 더불어 도서선택의 當爲를 결정하는 形式論理的 要因이다(河井弘志 1987, 466).

따라서 근대 공공도서관에서 선택지침으로 사용되었거나 선택행위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래로 회자되고 있는 선택론의 유형은 상술한 영향요인들의 특성과 그들에게 부여되는 가중치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讀書論, 良書論, 適書論, 教養書中心說, 文化機能(目的)論, 社會需要供給說, 社會調查說, 圖書館目的論, 圖書選擇風土論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통구분하면 L. Carnovsky, H. Haines, M. Fiske, R.K. Gardner 등이 이원론적 입장에서 정리한 價值論(價值指向的 選擇論)과 要求論(要求指向的 選擇論)으로 집약되는 바, 양대 이론의 실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1 가치론의 실체

2.1.1 가치론의 개념과 계보

價值論(value theory)은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를 위하여 어떤 價值基準을 설정하고 그것을 도서선택의 척도로 삼는 이론, 또는 이용자들이 응당 읽어야 할 자료를 제공하는 이론으로서, 도서의 文獻的 價值와 도서관의 教育的 機能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이용자를 위한다는 것은 가치있는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교양을 쌓게 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창출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그 때의 가치기준은 어떤 측면으로든 간

에 생활을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교육적 기능을 역설한다는 의미는 가치있는 도서를 선택함으로써 독자에게 우수한 문학을 접하는 기쁨과 다양한 비소설 주제의 복잡함을 경험하게 하고 文化水準을 높이는 동시이 삶을 개척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론을 지지한 인물로는 먼저 敎養書中心說을 대표하는 E. Edwards를 들 수 있다. 그는 신사가 교양을 쌓는데 필요한 도서를 선택하되 모든 분야를 망라할 수 없으므로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 系統的으로 集書하고 기타 분야는 양서를 수집하도록 제안하였다(河井弘志 1979, 40). 이어 J. C. Dana(1899, 53-58)는 교육적 차원에서 대중의 양식을 제고시키는 도서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은 J. D. Brown(1903, 204-205)은 교육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최선의 문헌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W. I. Fletcher(1895, 37-38)는 娛樂性, 實益性, 教育性을 문화로 총칭하고 가장 가치 있는 유형의 문화수단을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한 藏書構成論을 전개하였으며, P. Butler(1933)는 개인적 생활, 인간적 향상, 사회적 진보 등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인류번영에 이바지하는 도서를 선택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E. L. Bascom(1922, 4)은 도서관의 일차적 성격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이한 娛樂圖書의 선택을 경계하고 啓發書와 知識書 중심의 선택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F. K. W. Drury(1930, 237-239)는 도서의 가치를 장서의 기본요소로 간주하되 독자의 요구에 알맞은 適書를 제공하도록 하는 相對的 價値論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치론 계보의 대표적 인물인 H. E. Haines는 “요구가 제공의 근거와 이유는 될지라도 훌륭한 저작은 도서관구조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될 것 인지에 관계없이 永久的 價値를 지닌 도서를 선택해야 한다”(1950, 41)고 역설하였으며, L. Carnovsky(1936, 301-305)는 요구론이란 질적 기준이 없는 가치, 요컨대 진실을 무시한 채 주민이 요구하는 도서를 제공한다고 비난하고 도서의 문헌적 가치와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良書를 선택원리로 삼았다.

그 외에도 가치론은 사서직의 專門職論이자 質指向的 選擇論이라는 입장을 취한 T. Parsons(1959, 78-94), 도서관의 교육적 목표와 관련하여 요구보다 질을 중시한 D. Spiller(1991), 양서론자인 Gardner(1981, 103) 등도 가치론 계보에 속한다.

2.1.2 가치의 개념 및 유형

가치의 일반적 개념은 사물이 지니는 의의나 중요성 따위를 의미하지만, 가치론에서의 중심개념인 가치는 도서에 내재하는 文獻的 價値, 이용자입장에서 고려되는 讀者指向的 價値, 그리고 양자에 도서관의 목적과 상황까지를 가미한 總體的 價値로 세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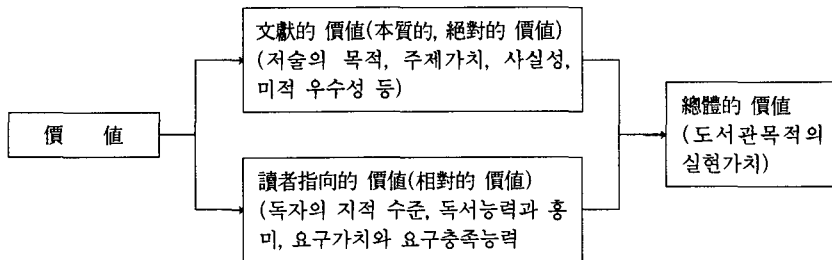
먼저 문헌적 가치는 이용자의 단순요구나 도서관입장보다는 도서에 내재하는 絶對的 價値(absolute value)인 著述目的, 主題價値, 事實性, 美的 優秀性 등 문헌의 특성과 수준을 중시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Carnovsky(1936, 301 - 303)는 도서관에 문헌이 입수되는 것은 그러기에 충분한 일련의 문헌적 기준이나 가치가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질적 기준에 도달하는 양서를 수집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리고 J. H. Wellard(1937, 92)와 E. Phinney(1955, 25 - 26)는 문헌적 가치관 반드시 독자와의 상대적 관계를 전제하는 가치가 아니라 도서 자체가 지니는 權威性, 眞實性, 美的 優秀性 등의 本質的 價値(intrinsic value)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M. Taube(1941, 221 - 225)는 도서의 문헌적 가치기준을 附加價値(도서가 장서에 포함될 때마다 증가하는 가치증가분), 參照價値(참고도서처럼 필요한 부분만을 조사, 참고하는 가치), 批評價値(수록된 정보를 일반적 또는 전문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가치), 文獻資料價値(연구자료로서의 문헌적 가치), 貨幣價値(유통시장에서의 가격)로 구분하였다. Haines(1950, 49 - 52)는 도서의 유형별 가치특성을 세분하여 啓發書는 창조력·상상력·진실성·확고한 구성·깊이·표현미 등을, 知識書는 지식의 사실적 가치와 정확한 취급방법을, 娛樂書는 오락·인간경험의 이해·공감을 유발하는 힘 등을 지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독자지향적 가치는 도서에 내재하는 本質的 價値나 絶對的 價値가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 지적 수준, 독서능력과 흥미, 요구가치나 요구충족능력을 척도로 삼는 相對的 價値(relative value)를 말한다. 가치론자인 Dana(1899, 54 - 57)는 독자들의 흥미와 지적 수준에 적합한 도서를 適書(right book)로 정의함으로써 도서내용보다는 독자입장에서 가치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C. A. Cutter(1901, 70 - 72)는 양서(best book or good book)의 기준은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絶對的 良書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신에 바람직한 도서 혹은 相對的 良書로 표현하여 객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서로 정의하였으며, Bostwick(1920, 143)도 要求充足能力을 지닌 도서를 양서로 간주하였다. 또한 E. P. Andrews(1897, 71)는 독자를 배제한 어떤 가치

도 普遍性을 지니지 못한다는 견지에서 도서가치를 抽象的 價値가 아닌 讀者要求에 대한 適應性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McColvin은 “어떤 도서를 제공하는 유일한 正當性은 그 도서에 대한 요구와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요구의 가치와 중요성은 도서의 가치와 동등하며, 그 반대현상도 사실이다”(1925, 27)라고 말함으로써 도서의 가치와 요구의 가치를 동일시하였다. 즉, 요구에는 그것이 귀속되는 주제영역이 있으며, 그 主題價値가 要求價値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체적 가치는 <그림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서에 수록된 정보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주제가치 등의 文獻的 價値와 독자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요구가치 등의 讀者指向的 價値를 포괄하며,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의 목적을 실현하는 제가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Drury(1930, 238 - 239)는 모든 도서가 고유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도서의 가치를 本質的 價値, 教育的 價値, 娛樂的 價値로 나누고, 그 중에서 독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적, 오락적 가치를 보다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였다. 文藝批評技法(literary criticism)을 도입한 Wellard(1937, 92 - 101)는 도서의 가치를 독자의 실제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本質的 혹은 絕對的 價値와 일반 독자의 독서흥미·요구·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附隨的 價値(incidental value) 혹은 相對的 價値로 구분하고, 각각의 價値決定基準을 文獻的 基準과 社會心理學的 基準으로 지칭하였다. 그런가 하면 Phinney(195, 25 - 26)는 가치의 종류를 著作目的의 達成度인 본질적 가치, 讀者目的의 達成度인 상대적 가치, 그리고 圖書館目的의 達成度인 制度的 價値로 구분하고, 이들 중에서도 제도적 가치를 도서선택의 주요한 기준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1> 가치의 개념과 유형



2.1.3 가치의 분석과 평가

도서의 價値構造는 상술한 바와 같이 文獻中心의 絶對的 價値와 讀者中心의 相對的 價値 등 복잡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정 기준으로 전체를 일괄 평가하거나 특정 요소에 의한 평가결과로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제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상대적 가치는 독자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문헌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왔다.

먼저 G. F. Bowerman은 도서의 유형별 평가기준론에서 도서를 知識事實書, 意見思索書, 創作文藝書로 구분하고 각각의 도서에 대응하는 평가기준으로 眞·善·美라는 철학적 개념을 적용하였으나(1931, 51-52), 평가전체가 연역적이고 도서의 유형별 특성과 결합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分析評價法의 발상자인 Bostwick(1920, 142-143)는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가 상세하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서의 價値檢定基準을 언어, 단순성, 명료성, 흥미의 적절성, 진실성, 독자에 대한 영향력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독자에 대한 영향력의 점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Bascom(1922, 6-10)은 Bowerman의 도서유형을 知識書, 啓發書, 娛樂書로 수정분류한 다음, 특히 지식서의 평가요소를 주제, 저자, 주제취급방법, 간행빈도, 내용구성, 체제 등 여섯 가지로 들고, 각 요소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도서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圖書檢證法을 제시하였다. 이는 종래의 방법이 도서전체의 진실성, 영속성, 요구·필요, 도덕성을 평가하는 綜合的 方法이었는데 비하여 要素分析的이며, Bostwick가 內容中心의 態度를 취한데 비하여 그의 평가는 表面的이고 記述的이다. 그런가 하면 Drury(1930, 137-139)는 평가대상자료를 主題圖書와 小說로 양분하여 공통적 평가요소로 저자의 자질·서지데이터·물리적 특징·주제·문헌적 가치나 문체·이용가능성·도서관기록(리뷰)의 일곱 가치를 제시한 다음, 주제도서의 평가요소로 취급범위와 형식·인용자료 등 두 가치를, 소설의 평가요소로 구성·등장인물·배경·예술성 등 네 가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Haines(1950, 53-54)는 Bostwick에 의해 발상되어 Drury가 체계화한 분석평가법을 참고하여 非小說의 評價基準으로 주제·저자권위·질·물리적 특징·독자 가치 등을, 小說의 평가기준으로 비소설 평가요소의 일부·진실성·예술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개별 평가하고 다시 종합하여 도서전체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제간의 價値構成要素를 표준화한 Drury와 달리 Haines는 주제의 특수성을 중시하여 주제별 특유의 가치구성요소를 개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서 Drury는 가치기준을 통일하고 개념을 고정시키고 가치이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한 반면에 Haines는 가치일만을 생각하고 평가요소의 개념을 상호조정하면서도 각 저작의 固有價値를 추구하였다.

이상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도서의 가치는 주로 문헌적 가치를 중심으로 미리 설정한 가치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도서전체를 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 때 평가기준이 되는 제요소는 주제간에 표준적으로 적용되거나 각 주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독자지향적 가치나 도서관 목적의 실현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론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2 요구론의 실제

2.2.1 요구론의 개념과 계보

要求論(demand theory)은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구중심으로 도서를 선택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은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 보다 설득력을 지니는 선택론으로서, 도서관에게는 이용자의 요구도서에 대한 提供義務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에 대한 要求權利를 용인하는, 이른바 民主主義原理에 기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요구가 도서선택과 복본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 구입된 도서는 이용의 正當性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이용주의를 지향하는 도서관들이 주로 채택하는 선택론이다.

요구론을 주장하거나 지지한 선구자적 인물로는 J. Schwartz를 들 수 있는 바, 그는 사서 자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용자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구입해야 한다는 요구론적 선택원칙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1888, 334). 이어 F.M. Crunden(R. N. Broadus 1973, 17)은 이용자들이 마땅히 읽어야 하는 도서보다 그들이 원하는 도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도서관정책을 제시하였으며, Bostwick는 이용자요구를 중시하여 “어떤 요구에 부응하여 구입한 한 권의 도서는 사서가 도서관의 입장에서 소장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구입한 한 다스(dozen)의 도서에 필적한다”(1920, 244)고 강변하였다.

그리고 요구론을 체계화한 인물로 간주되는 McColvin(1925, 16-21; 86-102)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도서를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요구론적 선택원리를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장서의 양적 증감으로 요구량을 조절함으로써 요구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방법, 즉 특정 분야의 도서를 늘려 독자들로 하여금 그 증가량을 인지하게 하는 대신에 타분야의 도서를 줄여 독자들을 圖書貧困狀態로 몰아 넣음으로써 특정 분야로의 이용을 집중시키는 방법과 요구론의 최대 취약점인 요구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계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McColvin의 思辨論的 要求論을 조사방법으로 보완하고 실용화를 시도한 H. V. Bonny(河井弘志 1977, 45), “요구가 없으면 봉사도 있을 수 없다”고 역설한 M. E. Monroe(1963, 516), 通俗小說의 이용을 정당화한 G. W. Cole(1894, 18-21) 등을 들 수 있다.

2.2.2 요구의 개념과 유형

요구론의 중심개념인 이용자요구는 도서선택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의 도서선택론에서는 要求(demand)·必要(need)·欲求(want)·慾望(desire)·嗜好(taste)·選好(preference)·關心(interest)등이 요구의 제개념으로 혼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거나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Bostwick(1920, 143)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서관직원에게 직접 전달되는 요구보다 이용자 자신도 인지할 수 없는 潛在的 要求를 포함하는 일체의 필요를 도서선택의 기본개념으로 삼았으며, 그 중에서도 합법성을 갖고 사회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필요를 合法的 必要(legitimate needs)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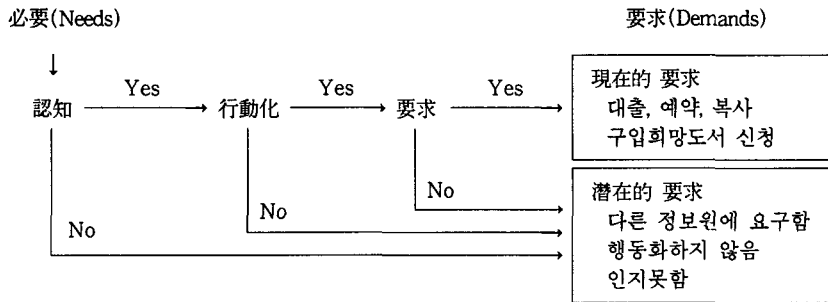
그러나 McColvin은 “도서가 내포하는 정보 또는 도서가 제공하는 지적, 정신적, 오락적 혹은 미적 자극에 대한 요구는 필요와 욕망에서 발생한다”(1925, 27)고 전제하고, 요구를 독자의식에 잠재하는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自己表現, 즉 充足行爲의 첫단계로 규정함으로써 요구와 필요를 엄격히 구별하는 동시에 요구를 도서선택의 중심개념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또한 요구의 유형을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는 現實的 要求(actual demand)와 봉사방법에 따라 창출될 수 있는 可能態 要求(possible demand)로 양분하고, 전자를 다시 顯示要求(expressed demand)와 潛在要求

(unexpressed demand)로 세분하여 도서선택시의 우선순위를 현시요구, 잠재요구, 가능태 요구의 순으로 제시하였다(1925, 59-62).

다음으로 M. B. Line(1974, 87)과 N. Roberts(1975, 308-313)는 경계가 불명확한 요구의 재개념에 대하여 필요는 소유해야 하는 것, 욕망은 소유하고 싶은 것, 요구는 요청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T. D. Wilson(1981, 3-15)도 요구개념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情報要求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生理的 要求, 感性的 要求, 知的 要求를 만족시키기 위한 개인의 情報追求行爲”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표현되는 요구와 표현되지 않는 필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T. Childers(J. Kirkelas 1983, 7)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動態的 要求(kinetic demand)와 태도·가치관 등에 내재한 潛在的 要求로 구분하였으며, 伊藤昭治 등(1989, 208)은 대출과 예약을 가장 현재적 요구로, 비내관자의 독서흥미를 가장 잠재적인 요구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요구론에서의 요구는 demand와 need를 주요 개념어로 간주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필요는 요구보다 추상적이고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표현되는 요구와 표현되지 않는 요구, 그리고 표현과는 무관하게 이용자의 현재적 요구와 잠재적 요구가 조합된 복잡한 개념이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용자의 심중에 내재하는 필요(needs)가 확실하게 표현·표명되었을 때를 요구(demands)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유형은 필요의 인지 및 행동화 여부에 따라 현재적 요구와 잠재적 요구로 구분된다.

<그림 2> 요구의 개념과 유형



2.2.3 요구의 해석과 측정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도서를 제공해야만 그 存在價値와 效用價値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무시한 도서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도서선택에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요구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문제는 선택론으로서의 요구론을 정당화하는 관건이 된다.

먼저 Bostwick(1910, 129-130)는 지역주민의 현실적 요구는 貸出要請이나 豫約件數 및 그 특징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잠재적 요구는 주민과 그 환경에 대한 사서의 個人的 知識과 直觀力으로 추측하는 要求把握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McColvin은 사서와 이용자간의 요구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요구량과 요구가치의 상관관계를 계량화한 要求表示指數(demand representation number)의 算出式으로 主題別 要求構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자관의 이용통계와 직관적인 방법으로 현실적 요구를 측정하고, 지역도서관의 이용상황 및 이용자수·지역사회의 생활양식·각종 교육문화단체·지역적 특색 등의 지표로 잠재적 요구를 측정하여 합산한 要求總量에 도서의 실제가치인 요구의 主題價値(要求價値)를 측정하여 곱한 요구표출지수를 진정한 요구로 간주하였다(1925, 72-77). 그렇지만 실제로 요구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란 곤란하므로 계량화에 대한 필요성만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측정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요구측정은 要求評價라기 보다는 단순히 要求量의 測定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Drury(1930, 9-16)는 McColvin이 제시한 요구측정지표를 정리하여 이용자와의 접촉, 대출 및 참고봉사의 통계분석, 구입희망도서의 분석, 지역사회조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그는 McColvin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동일집단에 속하는 독자는 유사한 형태의 독서흥미를 지닌다는 시카고학파의 이론과 도서관의 지역사회조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접촉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요구 데이터를 직업별, 연령별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R.N. Brodus(G. E. Evans 1987, 100)는 요구평가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요구를 자극하는 弘報物의 영향, 要求密度와 持續期間, 특정 도서에 대한 拒否感, 표준도서와 고전의 소장비율, 특정 도서와 주제의 과거대출, 잠재적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정도, 진정한 요구와 假飾的 要求의 차이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이용자요구를 해석하고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나 모

두 주관성과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개인별 접촉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용기록으로는 잠재적 요구를 분석할 수 없으며, 계량적 방법에 의한 要求價値의 계량화도 매우 난해한 과제이다. 게다가 현재적 요구가 지역사회 요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다양한 잠재적 요구를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며, 요구가치에 대한 선택사서와 이용자의 시각도 다르다. 이처럼 요구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測定裝置가 미약하기 때문에 要求論의 正當性이 확고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3. 圖書選擇論의 辨證法的 解釋

공공도서관은 도서를 주된 매개체로 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社會制度的 裝置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이 사회속에서 기능하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봉사기관으로 존재하려면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사조, 교육 및 문화정책, 사서의 가치관, 이용자의 흥미 및 요구를 수용하여 도서관목적에 재정립하여야 하므로 그 때마다 도서의 選擇基調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변화로 초래되는 圖書館目的의 변화와 그 여파로 인한 圖書選擇論의 展開過程을 辨證法的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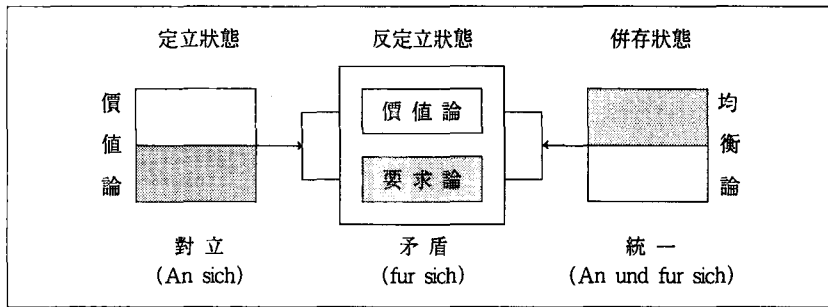
3.1 변증법적 기본구조

변증법은 철학의 범주를 넘어 다른 학문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多意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정의하기란 곤란하다. 그러나 변증법을 거론할 때의 대부분은 定立과 反定立을 거쳐 對立의 綜合에 이르는 사상과 실재의 論理的 發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변증법은 否定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부정에 의한 발전의 논리로서, 어떤 존재(A)는 자신 중에서 필연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존재(非A)를 산출하게 되므로 A는 A인 동시에 A가 아닌 존재(非A)가 되어 양립하는 矛盾을 낳는다. 이 모순은 변증법의 端初가 되지만 무한정 지속될 수 없으므로 自己否定(非A)은 재차 부정되어 결국 모순이 극복된다. 그러므로 辨證法的 基本構造는 과정상 최초로 존재하는 것(A)의 '定立'과 그것을 부정하

여 대립하는 것(非A)의 '反定立', 그리고 다시 반정립이 부정되어 양자의 대립이 통일되고 모순이 극복되는 '綜合'이라는 형태로 정식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증법의 기본구조를 도서선택론에 대입하여 도시하면 그 기본구조는 <그림 3>과 같이 價値論과 要求論의 相互法則性, 즉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전개되는 동적인 변화와 발전의 논리이며, 전체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논리이다.

<그림 3> 도서선택론의 변증법적 구조



<그림 3>에서 본래 定立狀態(thesis state)였던 價値論은 외계에 존재하는 자연현상이나 역사적 사상 또는 관념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유한적인 한 반드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지니게 되는데, 이 否定性 때문에 가치론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他者인 要求論을 낳게 되던가, 요구론으로 轉化하여 양자간에는 對立(An sich)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有限성과 否定性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되며, 대립하는 가치론과 요구론은 타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이유가 되므로 相互否定하는 동시에 相互肯定하는 反定立狀態(antithesis state), 즉 矛盾(fur sich)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가치론과 요구론이 대립하는 모순은 유한적이므로 반드시 극복되기 마련인데, 이를 併存狀態인 和解的 統一(An und fur sich)이라 한다. 따라서 가치론에 내재하던 양자의 대립상태는 극복되어 均衡論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된다. 물론 이 때의 균형론에서는 가치론에서의 가치가 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중시되던 價値指向的 霧圍氣와는 달리 요구가 더 중요하게 되는 要求指向的 選擇論이 될 수도 있다.

3. 2 변증법적 전개과정

가치론과 요구론은 상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의 내외적 요인과 도서관이 설정한 목적관의 변화에 따라 對立, 矛盾, 統一이라는 변증법의 기본구조를 통하여 均衡論 혹은 併存狀態에 도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과정은 항구적이거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모순되는 양자간의 끊임없는 緊張關係와 相互規制關係를 에너지화 함으로써 모순과 대립을 止揚하고 고차원의 認識에 이르는 思考形式인 正 → 反 → 合 → 反 → 合 · · · 의 반복과정을 거쳐 더욱 발전하게 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변증법적 기본구조와 발전논리가 가치론과 요구론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학의 전개과정, 즉 가치론의 定立狀態에서 요구론의 反定立過程을 거친 다음, 가치론과 요구론이 綜合에 도달하고 마침내 多元的 圖書選擇論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價値論의 定立

19세기 중반 영미를 중심으로 無料公開와 公費運營이라는 원칙하에 탄생한 근대 공공도서관이 추구한 일차적 목적은 도서관과 도서를 통하여 사회를 개량하고 대중을 교육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관은 양국의 사회지도층이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社會改良的, 大衆教育的 役割을 강조한데서 비롯되었다.

먼저 영국의 경우, 진보성향의 하원의원 W. Ewart를 위원장으로 하는 「無料公開圖書館의 設立促進을 위한 特別對策委員會」가 대영박물관도서관 직원이었던 Edwards 등의 증언을 청취하여 1849년에 제출한 'Ewart report'에서 공공도서관을 대중의 지적 및 도덕적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로 간주하여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도서는 피해야 하고, 그 장서는 건전한 오락에 유용한 표준적인 도서인 양서이어야 하며, 무료공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접근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芝田正夫 1976, 116; 常盤繁 1976, 6). 이어 1850년 Ewart가 하원에 제출한 「公立圖書館·博物館法(案)」은 세 번의 讀會過程을 거쳐 모든 사회계층에 개방하는 公開性, 지방세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통교육을 보급하는 公費負擔, 그리고 無料入館制를 기본요건으로 하는 공공도서관법으로 공포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852년에는 당시 시장이었던 J. Potter의 주도하에 대도시 최초의 맨체스터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위원회보고서와 법제

정의 주역이었던 Edwards가 도서관장에 임명되어 普遍的 精神(Catholic spirit)과 公費 運營을 통한 無料公開原則을 구현하였다. 물론 사회개량주의자들은 1850년의 공공도서관법을 國民의 文化水準向上보다 社會秩序維持에 치중한 反動的 立法으로 격하시켰고(T. Kelly 1974, 27; Wellard 1937, 20), 실제로 사회지도자들 중에는 지식이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무제한 확산되면 社會階級體制가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지식의 대량보급이야말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간주하였다(J. Allred 1978, 18-21).

미국의 경우도 E. Everett와 G. Ticknor 등 1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1852년에 제출한「보스톤公共圖書館理事會報告書」에서 도서관 설립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도서관을 教育施設(公立學校의 隣接施設)로 간주하고, 학교교육의 수요자에게 지적, 문화적으로 계속 성장하는데 필요한 독서자료의 제공에 일차적 목적을 둬으로써(P. Williams 1991, 5-6; V. L. Pungitore 1993, 10), 미국 공공서관의 기능과 목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公式記錄인 동시에 信條(credo)로 평가받게 되었다(J. H. Shera 1949, 181). 이를 계기로 1854년 미국 최초로 보스톤공공도서관이 학교교실을 전용하여 개관하였으며, 이 도서관의 이념과 지침은 이어 설립된 많은 공공도서관에 준용되었다. 이처럼 보스톤의 사회지도자들은 민주사회를 보호하고 평등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을 大衆教育機關으로 생각하였다(R. E. Lee 1966, 5-6). 물론 당시의 사회지도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자신들의 신분유지와 사회안정, 이민집단을 美國化(Americanization)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으나(M. Harris 1973, 2510-2513), Dewey·Shera·S. Ditzion·Williams 등은 자선가들의 도서관활동을 대중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博愛主義的 努力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19세기 후반까지 양국의 사회사조가 啓蒙主義와 教育主義를 지향하였다는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社會改良 및 大衆教育施設로 제공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와 대중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증대도 불가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기본적 목적은 社會改良的, 教育的 目的으로 정립되었으며, 양대 목적을 달성하는 절대적 수단인 도서는 양서를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보스톤공공도서관의 설립에 산파역을 담당했던 G. Ticknor의 대출을 중시하고 건전한 통속서를 지향했던 民主的 民衆圖書館論과 自然向上論(요구도서를 제공하면 자연히 讀書興味와 水準이 제고된다는 이론으로서, 도서선택에는 교육적 판단이 필요하고 독서수준

의 향상에는 교육적 기능이 내재하므로 단순한 要求論과 구별된다), J. P. Quincy II의 良書主義, E. Everett의 자료보존을 중시하고 학술서를 지향했던 保守的 學術圖書館論은 이 도서관의 선택론을 형성하게 하였고, 결국에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전형적인 선택론이 되었다. 그리고 보스톤공공도서관 이사회는 1875년의 수정보고서에서 공공도서관은 대중교육과 자기개선 및 정보제공을 위한 기관이므로 가벼운 娛樂小說을 제공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당시 유럽과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서들도 대체로 공감하였다(F. Atkinson 1981, 9).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教養書와 知識書 및 가치있는 大衆書를 중심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선택론은 당연히 價値論的 色調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의 목적관과 선택론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포괄적인 대중교육이 선택원리로 채택되었으며 그 선택론은 良書論 혹은 價値指向的 選擇論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시의 도서선택론(BST)은 <그림 3>에서 도시된 변증법의 기본구조상 비록 요구론(BSTd)이 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론(BSTv)의 定立狀態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론은 선택론의 部分集合에 불과하므로 항상 자신속에 몇 가지의 限界性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선택사서가 문헌적 가치를 기준으로 급증하는 도서를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價値判斷基準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이용자요구가 선택기준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도서의 가치와 질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였기 때문에 선택자의 주관이 개입될 개연성이 농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사서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식이 되었다. 그리고 설령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판단하에 선택하였다더라도 전체이용자 중에서 소수계층에게만 부합하였으므로 이용자에게 엘리트의식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외에도 이용자의 요구나 취미, 독서습관을 무시하고 선택한 도서가 別無利用될 경우에 선택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요구론은 自己否定態를 내포한 가치론을 부정·보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換起된 것이다.

3.2.2 要求論의 反定立

19세기말 영미사회의 産業化政策은 인구의 都市集中現象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파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서관의 대중교육적 역할이 더욱 강

조되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수는 급증하였다. 1895년 뉴욕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뉴올리언즈공공도서관, 브록클린공공도서관과 같은 대도시의 공공도서관이 계속해서 설립되었으며, 보스톤공공도서관도 1898년에는 중앙관과 분관을 포함하여 11개 관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를 시발로 1910년까지 35개 주에 설치된 州圖書館委員會는 소도시의 도서관설립을 촉진하였고, 1886년에서 1919년까지 미국의 1,412개 지역에 1,679개관과 영국에 24개관을 설립·기증한 A. Carnegie를 비롯한 다수의 부호들도 박애주의적 교육관에 입각하여 많은 도서관을 설립하였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 이어 내면적으로도 그 동안 수행해 왔던 사회개량적, 대중교육적 기능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공공도서관이 無料教育制度를 완성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있는 도서를 제공하던 貸出爲主의 劃一的 奉仕에서 일보 전진한 인간적 원조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開架制, 參考奉仕, 部門別 閱覽制度, 兒童奉仕 등의 새로운 봉사방식이 등장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이 낮은 대중들의 讀書興味를 유발하고 讀書能力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해하지 않은 오락도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讀書趣味向上論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사조나 지도층의 가치관이 공공도서관의 오락적 기능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목적관에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추가하는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870년대에는 大衆小說에 대한 排除論과 容認論이 최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는데, 그 발단은 독서취미향상론의 등장과 더불어 1876년에 출판된 「美國의 公共圖書館: 그 歷史와 現狀 및 運營」이라는 특별보고서에서 도서관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소설을 대출하도록 합의한데서 비롯되었다(U. S. Bureau of Education 1876).

小說排除論者들은 그것의 教育的 無價値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1879년 버몬트주의 버링톤공공도서관이사회는 특정 대중작가의 도서를 제거하였고, 매사추세츠주의 로렌스공공도서관도 열악한 소설을 다른 도서로 대체하는 방침을 채택하였으며, 1882년 클리블랜드공공도서관은 무익한 종류의 문학서를 제거하였고, 메인주의 포틀랜드공공도서관은 문제작가의 도서에 대한 대출을 중지시켰다(Williams 1991, 22-23). 그리고 T. Mackay는 소설을 용인할 경우, 귀중한 자금으로 도서를 구입한다는 儉約의 美德이 퇴색되는 동시에 자선가들의 자발적인 寬容의 美德을 유린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U. S. Bureau of Education 1876, 395). 그 외에도 W. Kite(Lee 1966, 26)는 대중소설이 인간의 성실한 삶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C. F. Adams(1879, 331)는 대

중소설류의 제공을 공공재정의 남용행위로 혹평하였다.

반면에 小說容認論者들은 도덕적, 지적 가치가 내재된 소설은 더 훌륭한 도서를 접하는 출발점이 되며, 설령 문학적 가치가 빈약한 소설일지라도 오락적 가치는 있기 때문에 대중소설의 레크리에이션 및 오락적 기능은 사회적 가치로 전환되고 도서관목적의 일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서의 가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Ticknor(Williams 1991, 19)는 소설을 自我教育過程의 출발점으로 보았으며, 도서관의 교육적 목적을 강조한 S.S. Green(1879, 345-355)도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도서관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소설의 배제에는 반대하였다. 1880년대에는 대부분의 도서관직원이 대중이 원하는 소설을 제공하였고, 1894년에 이르러서는 대중소설의 배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지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게다가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레크리에이션 운동은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도서관에서도 大衆小說이 용인되었다.

이처럼 1850년대에 教育的 目的觀을 확립한 공공도서관은 1870년대의 격렬한 논쟁 과정을 거쳐 1890년대 중반에는 대중소설의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인정하게 되었고, 대중소설의 대출은 성인교육프로그램의 일부가 됨으로써 20세기 초반에는 교육적 목적관으로부터 성인의 創造的 餘暇善用과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도서의 선택기준도 Schwartz가 제시한 이용자의 要求容認論을 필두로 요구론의 최대 상징부본인 J.W. Harbourn(1897, 251-252)의 레크리에이션 肯定論, 그리고 당대의 사조였던 小說寬容論(E.M. Coe 1883, 250-251) 등에 편승하여 도서가치 못지 않게 독자요구를 중시하게 되었다. Carnovsky와 W. Munte는 이 시기를 요구론이 價値論의 絕對性을 동요시키고 相對化시켰다는 측면에서 요구론의 등장과 더불어 도서 선택의 主導權이 가치론에서 요구론으로 교체되는 과정으로 간주하였다(河井弘志 1987, 53).

따라서 20세기 초반까지의 도서선택론(BST)은 <그림 3>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능확대와 전술한 가치론(BSTv)이 지니는 자체의 否定性들을 극복하고자 가치론에 대한 反定立狀態인 요구론(SBTd)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자의 요구와 흥미를 중시하는 요구론은 도서선택요인으로서의 가치가 지니는 절대성을 와해시키고 선택론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利用者階層의 擴大와 利用者不在의 선택론에 대한 저항에 힘입어 가치론으로부터 主導權을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심이론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요구론도 가치론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限界性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요구론은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적 원리이지만, 독자들의 취향은 주로 이용가능한 도서, 즉 規模의 經濟에 의해 형성되고 지배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長澤雅男 1966, 147).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질적 및 양적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구를 중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구의 진위를 규명하기도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편중된 현실적 요구가 과연 代表性을 지닐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다양한 잠재적 요구를 무시하여야 했으며, 요구의 偏重傾向을 극복하는데 따른 봉사 非效率性은 현저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나 성인잡지에 대한 요구처럼 일시적이고 현재적 요구를 중심으로 선택할 경우, 장서의 質的 低下는 물론이거니와 도서관이 別無利用資料를 보관하는 창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확실한 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情報價値가 높은 도서가 고의로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 독자들의 損失價値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단순한 요구론으로는 도서의 主題價値와 要求方向 및 要求量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요구가 무제한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사서가 주관을 갖고 도서를 선택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론에 근거하여 선택된 도서는 어느 정도의 이용을 담보받게 되므로 자료이용적 측면에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의 교육적, 정보제공적 기능이 희생된다는 측면에서는 가치론으로 보완해야 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론은 요구론에 의해 완전히 추방된 것이 아니라 요구론과의 대립관계속에서 相對性을 지닌 채 相互否定하면서도 相互肯定하는 樣態로 공존함으로써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相互媒介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3.2.3 價値論과 要求論의 綜合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공도서관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사회복귀, 민주정부의 확대, 사회구조의 변혁,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참정권 획득, 특수직식에 대한 수요증가, 경제적 불황, 2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과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의 와중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 초반에 엄습한 최악의 경제불황은 예산삭감으로 이어졌고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독서중심의 戰爭奉仕프로그

램, 戰後擴大프로그램, 讀書指導奉仕를 상당히 위축시켰으며, 도서관봉사를 지역사회에 확대·제공하려던 도서관인들의 열정을 냉각시켰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1933년 미국도서관협회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성명서인 「公共圖書館基準」에서는 모든 주민의 자아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독서자료제공과 이용원조, 현재의 복리외·미래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 및 아이디어의 제공, 생활의 문화적·정신적 제가치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확장, 새로운 여가에 대한 건설적인 이용기회의 제공 등을 목적관으로 설정하였다(ALA 1933, 513). 1934년에 도서관계획위원회 발표한 「圖書館의 全國計劃」에서는 자아교육, 지식진보의 원조, 문화의 감상력과 창작력의 고취 등을 목적관으로 제시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가장 강조하였다(ALA 1935, 92-93).

미국도서관협회에 의해 설정된 목적과 봉사지침들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공공도서관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보성향을 지닌 도서관인들은 예산삭감으로 침체되었던 성인교육의 책임을 도서관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成人教育奉仕와 讀書指導奉仕를 동일시하는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A. Johnson(1938, 79)은 美國成人教育協會의 요청으로 공공도서관의 성인교육을 분석·평가한 보고서에서 공공도서관을 '民衆의 大學(民主國家의 防護壁)'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공공도서관계는 다시 군인과 군사 및 산업시설에 대한 자료와 봉사를 제공하는 戰時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전후의 사회발전과 경제부흥에 기여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서관협회는 1941년 戰後計劃委員會를 구성하였으며, 1943년에는 「公共圖書館의 戰後基準」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도서관의 목적을 교육, 정보, 예술감상,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의 다섯 가지로 설정함으로써 교육을 가장 중시하되 과거에 등한시했던 정보봉사를 레크리에이션보다 강조하였다(ALA 1943, 9-23). 그 배경은 참전자들의 취업·개인의 능력개발·가족에의 적응·시민적 의무와 심리적 문제 등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정보봉사를 제공하고, 사회경제발전·지식전달 매체의 개발·민주주의의 확립·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實用情報과 技術情報의 요구 증가에 대비하는데 있었다. 1945년 종전과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재천명하기 위하여 전후계획위원회에 의해 완성된 「公共圖書館奉仕의 全國計劃」은 도서관을 美國型 良識의 兩大 支柱, 즉 집단생활의 민주화를 위하여 시민정신의 계몽을 추구하고 개인의 신성함을 존중하기 위하여 개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시스템의

하나로 규정하였다(ALA 1948, 16-17).

한편 미국도서관협회는 상술한 전국계획의 권고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1948년 社會科學研究會議에 의뢰한 「公共圖書館調查」라는 연구프로젝트 중에서 시카고대학의 도서관학과장이었던 B. Berelson의 보고서와 연구의 총괄책임자였던 R. D. Leigh의 보고서는 공공도서관의 目的設定과 發展方向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Berelson(1949, 10-132)은 미국성인의 25-30%가 월간 한 권을 독서하는데 비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도서는 성인독서량의 ½에 불과하고, 이용자의 약 20%가 대출 도서의 70%를 점유하고 대출도서의 약 ⅓가 소설이며, 주된 이용계층이 중류층이라는 통계치에 근거하여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包括的 奉仕概念을 진지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로 한정하는 制限的 奉仕概念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서관의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상업매체에 일임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Leigh(1950, 16-18)는 도서관목적은 지역주민의 시민정신을 계몽하고 풍부한 개인생활을 촉진하며, 정보센터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자기교육기회를 제공·격려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감상력과 창작력을 높이며, 개인행복과 사회복리를 증진하는데 여가시간을 이용하고, 대중의 지식진보에 공헌하도록 원조하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이처럼 1940년대까지의 공공도서관은 예산지원의 축소, 사회발전과 경제부흥, 민주주의 운동, 대중매체의 발달, 이용자요구의 증가 등과 같은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종래의 목적관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당시의 공공도서관에 용인된 목적은 정보·레크리에이션·교육으로 집약되며(H. Goldhor 1942, 160), 그 중에서 지역사회의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했던 단순한 娛樂的 目的이 약화되는 대신에 진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계층을 위한 社會教育的, 情報提供的 目的이 강조되었다(李庸男 1984, 145).

그러므로 1930-40년대의 도서선택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중심이론으로 부각하여 20세기초 McColvin을 필두로 독자의 요구와 흥미를 더욱 중시한 선택풍조와 시카고학파의 讀書興味理論에 근거하여 現在의 要求보다 潛在的 讀書興味를 강조하였던 요구론에서 가치론을 지향하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의 엄격한 教育主義의 思潮에 편승하여 재등장한 가치지향적 선택론은 요구론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요구지향적 선택분위기가 일시에 가치지향적 선택분위기로 반전되었거나 요구론이 완전히 추방된 것은 아니고 가치론과 더불어 相互補完的 併存狀態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당시 “도서선택자의 중요한 난제는 … 모든 도서관고지의 현재적 독서요구, 관심, 능력에 의해 표현되는 功利主義原理(utilitarian principle)와 문헌적 기준에 기초한 人文主義原理(humanist principle)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다.”(1937, 92)고 적시한 Wellard의 藏書均衡論과 고도의 유효성이 내재한 핵심장서 주위에 현재적 요구가 있는 주변장서를 年輪式으로 배치하도록 제안한 C. B. Roden(1940, 17 - 19)의 周邊藏書論(marginal theory of book selection)에서 연유한다. 또한 Haines는 가치론과 요구론이 각자의 내용을 충실히 다져가는 二元論的 過程으로 간주하였고, M. Fiske(1968, 11 - 15)는 직원들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가치론과 요구론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시의 선택론을 도서의 질과 이용자요구의 均衡關係論으로 표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939년에 채택된 「圖書館의 權利宣言」에서도 도서 및 기타 독서자료의 선택은 그 자료의 가치와 지역주민의 관심에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ALA 1974).

따라서 1940년대 전후의 도서선택론은 <그림 3>처럼 가치론(BSTv)과 요구론(BSTd)이 均衡狀態 혹은 併存關係로 轉化하였다. 그러나 양자가 均衡論, 즉 $BSTb[v(d) \cdot d(v)]$ 로 止揚하는 현상은 변증법의 논리상 대립은 반드시 일치에 도달하는 이른바 대립의 통일이나 화해를 의미할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선택론의 본성에 의해 가치론 속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요구론이 파생되고, 다시 요구론을 부정하게 되는 ‘否定的 否定’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일 뿐 처음부터 가치론과 요구론이 고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신비한 작용에 의하여 화해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치론과 요구론이 균형상태 혹은 병존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양자가 선택론속에 반드시 동일한 질량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치론이 완전하게 존재하는 대신 요구론이 상당히 배제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3.2.4 多元的 選擇論으로의 發展

1950년초 미국의 공공도서관계에는 聯邦補助金이 증가하고 成人教育基金이 계속해서 확대·지원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었으나 냉전적 시대조류에 편승한 공산주의의 심각한 위협으로 미국내의 반공운동이 고조되었고, 그 여파로 민주시민의 자유와 양식에 대한 제한적인 탄압행위가 자행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애국단체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도서관직원들을 표적의 대상으로 삼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자료에 표식을 부착하도록 강요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의 知的自由委員會는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국방성은 오히려 소속도서관들의 소장도서 중에서 3만권의 危險圖書目錄(C. Perry - Holmes 1983, 93)을 발표한 다음, 일부를 소각하는 焚書行爲를 저질렀다. 다시 미국도서관협회가 민중의 독서자유를 침해하는데 저항하기 위하여 「讀書의 自由」를 선언하자 펜실바니아주 재향군인회 지부의 출판물은 미국도서관협회를 左派(leftist)·赤色戰線(red front)·共產主義組織으로 비난하였고, 상원의원 J. McCarty(D. Thomison 1978, 190-191)는 지적자유위원회에 기금을 지원하는 포드재단을 사악한 共產主義 宣傳機關으로 몰아 붙였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도 1960년대를 전후로 공공도서관의 이념과 목적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먼저 미국 공공도서관계는 도서관법을 제정하기 위한 거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격렬한 논의과정을 거쳐 1956년에 법률로 공포된 「圖書館奉仕法」에서 도서관을 민중의 교육과 정치적 계몽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동년 미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公共圖書館基準」에서는 모든 주민의 비정규적인 자아교육의 촉진, 정보요구의 충족, 교육적·시민적·문화적 활동의 지원, 건전한 레크리에이션과 건설적인 여가이용의 권장을 도서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ALA 1956, 4), 이러한 목적들은 1966년의 「公共圖書館시스템의 最低基準」에서도 재확인되었다(ALA 1979a, 6). 그런가 하면 영국도서관협회에 의해 1962년에 제정된 「公共圖書館 奉仕基準」은 도서관을 개성의 풍요와 생활의 충만함을 촉진하는 사회기관 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지적 생활센터로 표현하였으며, 1971년에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教育, 情報, 文化, 餘暇의 순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여가목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Library Association 1971, 233-234).

한편 1971년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재정립할 목적으로 A. B. Martin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하였는 바, 그는 전술한 베렐슨과 리이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권고내용이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봉사대상을 전체주민이 아닌 소수의 엘리트로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하였고, 대중도서보다 우수한 도서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중도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50% 정도로 나타났으며, 레크리에이션보다 정보 및 교육기능에 치중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양분됨으로써 과거 20년간의 목적관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972, 11-17).

그러나 미국도서관협회는 1966년의 최저기준 이후 10여년간의 급격한 사회변화, 기록물의 지수적 증가, 완전한 평등주의의 지향, 자연자원의 고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79년에 채택한 「公共圖書館의 使命宣言」에서 도서관을 비전통적인 교육·문화·정보기관인 동시에 신체장애자와 탈선자들의 사회참여를 원조하는 社會復歸機關으로서 역할하도록 제시하였다(ALA 1979b, 4). 그리고 1987년에 출간된 「公共圖書館의 計劃 및 役割設定」에서는 도서관의 역할로 지역사회 활동센터, 지역사회 정보센터, 공교육 지원센터, 자주적 학습센터, 대중자료도서관, 취학전 아동의 학습장소, 참고도서관, 연구센터의 여덟 가지를 제시하였다(C. R. McClure 198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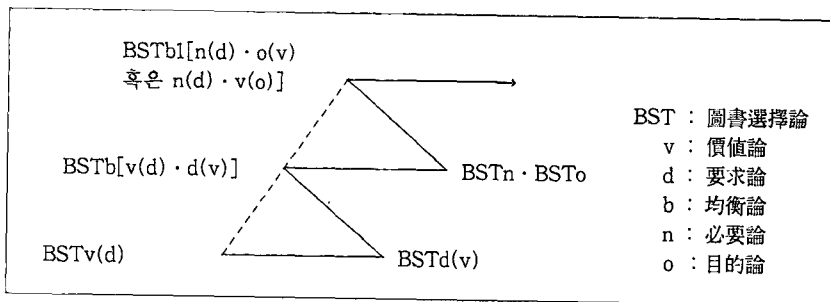
이처럼 1950년대의 공공도서관은 교육, 문화, 레크리에이션, 여가를 목적관으로 설정하였으나, 1980년대를 지향한 공식성명에서는 과거 독립항목으로 명시하였던 레크리에이션을 제외하는 대신에 地域全體에 대한 情報奉仕의 普遍性을 강조하고 지역내의 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요구에 점진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리함으로써 情報提供이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情報提供, 教育, 文化 등을 중심으로 복잡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多目的機關으로 변모하고 있다.

도서관목적관의 변화양상은 선택론에도 반영되었다. 1955년에 개최된 미국도서관협회의 圖書選擇專門會議에서는 社會思潮에 편승하여 요구론의 부당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탄핵되었으나, 한편으로 學校教育의 一般化와 文盲率의 低下 및 情報媒體의 發達로 이용자의 제고된 지적 수준은 도서선택에 대한 불만과 요구증가로 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Fiske(1968, 7-16)는 20세기 중엽의 선택론을 이용자의 知的 水準이 향상된 반면에 도서선택자의 專門的 權威가 상대적으로 저하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존재하여 왔던 이용자와 사서간의 '要求' 對 '質(價値)' 의 관계가 붕괴되어 '利用者의 質' 對 '選擇者의 質' 이라는 새로운 價値二元論의 緊張關係로 평가하였으며, M. D. Carter 와 W. J. Bonk(1979)도 그 연장선상에서 Fiske史觀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도서관목적관이 多岐化하고, 자료의 종류·이용형태·이용자의 가치관 및 요구내용 등이 다양화함에 따라 종래처럼 도서의 절대적 가치나 이용자의 현재적 요구와 같은 單線的 選擇基準으로 모든 도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목적관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도서선택의 원리와 기준은 다양하게 분열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의 도서선택론은 <그림 3>에서 가치론(BSTv)과 요구론(BSTd)이 정립과 반정립을 거쳐 一致和解에 도달했던 均衡關係로부터 새로운 緊張關係를 배태하였다. 즉, 가치론의 중심가치였던 絕對的 價値에 독자지향의 相對的 價値를 추가하는 동시에 현재적 요구중심의 단순한 요구론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요구의 재유형을 조합하여 확장한 圖書館必要論(BSTn)을 환기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다시 도서관필요론에서의 도서의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이용자 및 도서관의 目的實現度로 귀결짓는 圖書館目的論(BSTo)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기와 대립은 가치론과 요구론이 균형론(BSTb[v(d) · d(v)])에서 일치·화해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증법의 발전논리상 잠정적인 과정에 불과하므로 BSTb1[n(d) · o(v) 혹은 n(d) · v(o)]이라는 새로운 一致和解에 도달하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필연적으로 자신들과 대립하는 별개의 선택론을 지양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급한 圖書選擇論의 辨證法的 展開過程을 요약·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즉, 도서선택론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多意性을 내포하는 이상, <그림 4>에서 $BSTv(d) \rightarrow BSTb[v(d) \cdot d(v)] \rightarrow BSTb1[n(d) \cdot o(v) \text{ 혹은 } n(d) \cdot v(o)] \rightarrow$ 와 같이 각 단계에서의 잠정적인 화해만으로 진행되는 點線의 發展過程이 아니라 새로운 對立因子에 의하여 화해가 파기되고 또 다시 一致和解를 반복하여 $BSTv(d) \rightarrow BSTd(v) \rightarrow BSTb[v(d) \cdot d(v)] \rightarrow BSTn \cdot BSTo \rightarrow BSTb1[n(d) \cdot o(v) \text{ 혹은 } n(d) \cdot v(o)] \rightarrow$ 로 발전하는 實線의 轉化過程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도서선택론의 변증법적 전개과정



4.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도서선택론 중에서 價値論과 要求論이 선택론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論理性和 양대 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二律背反性和 對立性的 실체를 분석한 다음, 社會思潮와 圖書館目的觀의 變化趨勢에 따른 圖書選擇論의 展開過程을 辨證法的 發展論理로 해석해 보았는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세기 후반까지의 啓蒙主義 및 教育主義 時代에는 공공도서관이 社會改良的, 大衆教育的 目的을 수행하였으므로, 도서선택론은 요구론이 내재한 價値論 [BSTv(d)]의 定立狀態였다.
2. 20세기 초반까지의 도서선택론은 사회변동에 기인하여 도서관의 전통적인 목적관에 성인의 創造的 餘暇善用과 娛樂的 目的이 추가됨으로써 가치론의 內在的 否定性을 극복하고자 실질적인 중심이론으로 부상한 要求論[BSTd(v)]의 反定立狀態였다.
3. 1930-40년대에는 엄격한 教育主義的 思潮에 편승하여 공공도서관의 娛樂的 目的이 약화되는 대신에 진정한 여론을 형성·주도하는 계층을 위한 社會教育的, 情報提供的 目的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相補性을 지닌 요구론과 가치론은 對立關係속에서 一致和解하여 均衡(併存)關係(BSTb[v(d)·d(v)])로 轉化하였다.
4.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공도서관은 정보제공적, 사회교육적, 문화적 목적 등을 추구하는 多目的機關으로 변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선택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의 가치기준도 다양화하였다. 따라서 문헌중심의 絕對的 價値에 독자지향의 相對的 價値를 추가하는 동시에 現在的 要求를 潛在的 要求로 확장한 圖書館必要論(BSTn)과 각각의 가치를 이용자 및 도서관의 目的實現度로 귀결짓는 圖書館目的論(BSTo)이 환기·대립하여 조성된 새로운 긴장관계는 多元的 圖書選擇論(BSTbl[n(d)·o(v) 혹은 n(d)·v(o)])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대립하는 별개의 도서선택론을 止揚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根本彰. 1990. “要求論の限界とコレクション形成の方針.” 圖書館學會年報 36(3): 121 - 127.
- 常盤繁. 1976. “ユア-ト法と議會.” 圖書館學會年報 22(1): 1-8.
- 梁炳訓. 1993. “資料選擇論에 관한 考察.” 國會圖書館報 30(4): 18-29.
- 윤희운. 1994. “公共圖書館에 있어서 圖書選擇論의 發展過程.” '94년 한도협 대구·경북 지구협의회 세미나 주제발표자료: 7-21.
- 伊藤昭治, 山本昭和. 1989. “利用者の資料要求の分析 : 豫約圖書を中心として.” 圖書館界 40(5): 208-215.
- 李庸男. 1984. “美國 公共圖書館 目的變化趨勢에 대한 研究.” 社會科學論集(漢成大學 社會科學研究所) 2: 139-162.
- 芝田正夫. 1976. “イギリス公共圖書館の成立とエワ-ト報告.” 圖書館界 27(4): 107-117.
- 長澤雅男. 1966. “資料選擇要因の考察.” Library Science 4: 143-154.
- 河井弘志. 1977. “L. R. マッコールウインの圖書選擇理論.” 圖書館界 29(2): 35-48.
- 河井弘志. 1979. “英美圖書選擇論史(稿).” 圖書館界 31(1): 35-50.
- 河井弘志. 1987. アメリカにおける圖書選擇論の學說史的 研究.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 한상완. 1982. “良書選定理論과 要求圖書選定理論의 比較分析.” 韓國專門圖書館研究 2: 1-11.
- Adams, C. F. 1879. “Fiction in Public Libraries and Educational Catalogues.” Library Journal 4: 331.
- Allred, J. 1978. “The purpose of the Public Library : The Historical View.” in Public Library Purpose : A Reader. Barry Totterdell, ed. London : Clive Bingley.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3.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 ALA Bulletin 27: 51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5. “A National Plan for Libraries.” ALA Bulletin 28: 92-9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6. Public Library Service. Chicago : AL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9a. Minimum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System 1966. Chicago : AL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9b. The Public Library Mission Statement and Its Imperatives for Service. Chicago : AL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mmittee on Post - War Planning, 1943. Post-War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 Chicago : AL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mmittee on Post - War Planning, 1948. A National Plan for Public Library Service. Chicago : AL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1974. Intellectual Freedom Manual. Chicago : ALA.
- Andrews, E. P. 1897. "Book Selection." Library Journal 22: 71.
- Atkinson, F. F. 1981. Librarianship. London : Clive Bingley.
- Bascom, Elva L. 1922. Book Selection. Chicago : ALA.
- Berelson, B. 1949. The Library's Public.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 Bonk, Wallace John and Rose Mary Magrill, 1979.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5th ed. Metuchen : Scarecrow Press.
- Bostwick, Arthur E. 1910. The American Public Library. New York : Appleton.
- Bostwick, Arthur E. 1920. "How to Raise the Standard of Book Selection." in Library Essays. New York : Wilson Company.
- Bowerman, G. F. 1931. Censorship and the Public Library with Other Papers. New York : Books for Libraries Press.
- Broadus, Robert N. 1973. Selecting Materials for Libraries. New York : Wilson Company.
- Brown, James Duff, 1903. Manual of Library Economy. London: Scott Greenwood.
- Bulter, Pierce. 1933.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Carnovsky, Leon. 1936. "The Evaluation of Public Library Facilities." in Library Trend. Louis R. Wilson e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Childers, Thomas. 1975. The Information Poor in America. Metuchen, N. J.: Scarecrow Press.

- Coe, Ellen M. 1883. "Fiction." *Library Journal* 8: 250 - 251.
- Cole, George Watson. 1894. "Fiction in Libraries: A Plea for the Masses." *Library Journal* 19: 18 - 21.
- Cutter, C.A. 1901. "Should Libraries Buy Only the Best Book or the Best Book That People Will Read?" *Library Journal* 26: 70 - 72.
- Dana, John Cotton. 1899. *A Library Primer*. New York: Library Bureau.
- Drury, Francis K. W. 1930. *Book Selection*. Chicago: ALA.
- Evans, G. Edward. 1987.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2nd ed.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 Fiske, Marjorie. 1968. *Book Selection and Censorship: A Study of School and Public Libraries in Californ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Fletcher, W. I. 1895. *Public Libraries in America*, 2nd ed. Boston: Roberts.
- Goldhor, Herbert. 1942. "A Note on the Theory of Book Selection." *Library Quarterly* 12(2): 151 - 174.
- Green, S. S. 1879. "Sensational Fiction in Public Libraries." *Library Journal* 4: 345 - 355.
- Haines, Helen E. 1950. *Living with Books: The Art of Book Selection*,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rbourne, John W. 1897. "The Guideless West on Weeding out." *Library Journal* 22: 251 - 252.
- Harris, Michael. 1973. "The Purpose of the American Public Library: A Revisionist Interpretation of History." *Library Journal* 98(16): 2510 - 2513.
- Johnson, Alvin. 1938. *The Public Library: A people's University*. New York: ALA for Adult Education.
- Kelly, Thomas. 1974. "The Historic Role of the Public Library in Great Britain." *Journal of Society and Leisure* 1: 27
- Kite, W. 1877. "Fiction in Public Libraries." *Library Journal* 1: 277 - 279.
- Kirkelas, J. 1983. "Information - Seeking Behavior: Patterns and Concepts." *Drexel Library Quarterly* 19(2): 5 - 20.
- Lee, R. E. 1966. *Continuing Education for Adults Through the American Public*

- Library, 1933 - 1964. Chicago: ALA.
- Leigh, Robert D. 1950. *The Public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brary Association. 1971. "Public Library Aims and Objectives," *Library Association Record* 73: 233 - 234.
- Line, Maurice B. 1974. "Draft Definitions: Information and Library Needs, Wants, Demands and Uses." *Aslib Proceedings* 26(2): 87
- Martin, Allie Beth. 1972. *A Strategy for Public Library Change : Proposed Public Library Goals - Feasibility Study*. Chicago: ALA.
- McClure, Charles R. et al. 1987. *Planning and Role Setting for Public Libraries*. Chicago: ALA.
- McColvin, Lionel Roy. 1925. *The Theory of Book Selection for Public Libraries*. London: Grafton.
- Monroe, Margaret E. 1963. "Meeting Demands: A Library Imperative." *Library Journal* 88(3): 516.
- Parsons, Talcott. 1959. "Implication of the Study." in *The Climate of Book Selection*. J. P. Danton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Perry-Holmes, Claudia. 1983. "Censorship and Libraries: A Look Back at the 'Fifties'." *Newsletter on Intellectual Freedom* 32: 93.
- Phinney, Eleanor. 1955. "Book Selection Theory." in *Book Selection: Proceedings of a Work Conference*. S.J. Kee and D. K. Smith eds. Chicago: ALA Public Libraries Division.
- Pungitore, Verna L. 1993. *公共圖書館運營の原理*, 根本彰 等譯. 東京: 勁草書房.
- Roberts, N. 1975. "Draft Definitions : Information and Library Needs, Wants, Demands and Uses : a Comment." *Aslib Proceedings* 27(7):308-313.
- Roden, C.B. 1940. "Theories of Book Selection for Public Libraries." in *The Practice of Book Selection*. R. Wilson ed.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 Schwartz, J. 1888. "Business Methods in Libraries." *Library Journal*, 13:334.
- Shera, Jesse Hauk. 1949. *Foundations of the Public Library : The Origins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New England, 1629-1855*. Chicago : Univ. of

- Chicago Press.
- Spiller, David. 1991. *Book Selection*, 5th ed. London : Clive Bingley.
- Taube, Mortimer. 1941. "Theory of Book Selection, Part I."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221-225.
- Thomison, Dennis. 1978. *A History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876-1972*. Chicago : ALA.
- U.S. Bureau of Education. 1876.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ellard, James Howard. 1937. *Book Selection*. London : Grafton.
- Williams, Patrick. 1991. *アメリカ公共圖書館史*, 原田勝 譯. 東京 : 勁草書房.
- Wilson, T.D. 1981. "On User Studies and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Documentation* 37(1):3-15.

ABSTRACT

A Dialectical Study of the Book Selection Theory

Hee-Yun 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book selection theory by researching dialectically of its development process centering on the BSTv(value theory) and BSTd(demand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and education, the book selection theory of public libraries was the thesis state of BSTv(d).
2. Antithesis state of BSTv(d), that is, BSTd was raised to real central theory of book selec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3. In the 1930-40's, BSTv and BSTd were transformed into balance state or coexistence relations(BSTb[v(d) · d(v)]).
4. After World War II, BSTn(library needs theory) and BSTo(library objective theory) were evoked, and opposed to the existing selection theories. Now, they are developing into BSTb1[n(d) · o(v) or n(d) · v(o)].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